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장세기 31 주자 (창 26:12~27:20)

(2016년 7월 17일 - 2016년 7월 23일)


(제 4 권 31 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ORY 제 4 권-제 3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6 년 7 월 17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토박이보다 더 강한 나그네 (주일)

### 오늘의 본문 (창 26:12~17)

- (12 절)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그 해에 100 배를 얻었습니다.  
 (וַיִּזְרַע יִצְחָק בְּאֶרֶץ הַהוּא וַיִּמְצָא בְשָׂנָה הַהוּא מֵאָה שְׁעָרִים)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בָרֶכְהוּ יְהוָה)
- (13 절) 그사람(이삭)은 부유해졌습니다. (וַיִּגְדַּל הָאִישׁ)  
 그는 더욱 더 부유해져서,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וַיִּלְךָ הָלוֹךְ וַיִּגְדַּל עַד כִּי־גִדַּל מְאֹד)
- (14 절)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וַיְהִי־לוֹ מִקְנֵה־צֹאן וּמִקְנֵה בָקָר וַעֲבָדָה רַבָּ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וַיִּקְנְאוּ אֹתוֹ פְּלִשְׁתִּים)
- (15 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וְכָל־הַבְּאֵרֹת אֲשֶׁר חָפְרוּ עֲבָדֵי אָבִיו בְּיַמֵּי אַבְרָהָם אֲבָיו)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סָתְמוּם פְּלִשְׁתִּים וַיִּמְלְאוּם עָפָר)
- (16 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יִמֶלֶךְ אֶל־יִצְחָק)  
 내 백성으로부터 떠나가십시오. (לָךְ מֵעַמִּנוּ)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כִּי־עָצְמַתְּ־מִמֶּנּוּ מְאֹד)
- (17 절) 이삭이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וַיִּלְךָ מִשָּׁם יִצְחָק)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וַיִּסֵּן בְּנַחֲל־גְרָר וַיִּשְׁבַּב שָׁם)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과 아비멜렉은 그렇게 화해했다. 서로 화해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일은 이삭이 혼자 지레 겁을 집어 먹고 그랄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어쩌다 그곳 사람들과 만나기라도 하면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것이 괜한 걱정이었음이 드러나자 이삭의 집은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그해에 100 배의 소출을 얻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13 절에는 그가 부유해졌다고 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한다. 그만큼 이삭이 부유해진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직접 확증받은 후 전개되는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번 일로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대로 빼닮은 듯하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삭도 기근을 만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아 섰다. 할 수 없이 이삭은 이집트로 가는 대신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듯이 이삭도 똑 같은 이유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다. 다만 다른 것은 이집트 사람들은 사라를 바로 왕에게 데려갔지만 그랄 사람들은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데려가지 않았다. 과거에 그랄공동체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라를 집안으로 들였다가 혼쫓이 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망신을 면한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공개적 망

신을 당한 것처럼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건으로 인해 더욱 부자가 되었다. 그는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생각지도 않은 재물을 얻었다. 이삭 역시도 그 일이 있는 후에 그곳에서 다른 이들과 씨름을 벌여 농사를 지었을 뿐인데 유독 그의 밭에서만 소출이 백 배나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성취를 거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보살폈기 때문이다.

이삭은 양떼,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점점 늘어나 그 지역에서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예나 지금이나 맞는 모양이다. 이삭이 부유해지고 힘이 강성해지는 것은 그 지역 토박이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겐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아마도 이방인인 이삭이 부유해지고 강성해 가는 동안 그들은 별로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갈수록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꿔던 우물을 모두 메워 버렸다. 그들은 이삭이 가진 부의 근원이 바로 그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우물만 메우면 더 이상 이삭은 부나 힘을 축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일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서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었으니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의 시기를 받게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 걸맞는 권세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이집트 사람들과 이삭이 만난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 토착민들이다. 결코 떠돌이가 아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였다. 그래서 기근이 들거나 마실 물이 없으면 그곳을 떠나야 하고, 그 지역 토착민들과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떠나야 했다. 자신이 일군 땅이든, 아버지가 파 놓은 우물이든 그 무엇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버려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이삭은 절대 블레셋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삭은 철저히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떠나야 했다.

드디어 이삭이 그 땅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생산력의 원천인 우물을 훔으로 메워 못 쓰게 만들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그보다는 이 일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신변을 보호해 주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는 이삭이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했다. 이삭은 모든 걸 버려두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소출의 백 배를 안겨준 밭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모두 버려두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옮겨 갔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험난한 인생도 그렇게 이어져 갔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에서의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 우물을 놓고 다투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6:18~25)

- (18 절) 이삭은 다시 돌아와 우물들을 팠습니다. (וַיָּשָׁב יִצְחָק וַיַּחְפֹּר אֶת־בְּאֵרֵת הַמַּיִם)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우물들을), (וַיִּסְתְּמוּם פְּלִשְׁתִּים אַחֲרַי מוֹת אַבְרָהָם)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그 우물들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וַיִּקְרָא לָהֶן שְׁמוֹת כַּשְׁמֹת אֲשֶׁר־קָרָא לָהֶן אָבִיו)
- (19 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고, 그곳에서 물이 샘솟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וַיַּחְפְּרוּ עֲבָדֵי־יִצְחָק בְּבִקְעָה וַיִּמְצְאוּ־שָׁם בְּאֵר מַיִם חַיִּים)
- (20 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습니다. (וַיָּרִיבוּ רֹעֵי גְרָר עִם־רֹעֵי יִצְחָק לְאֹמֶר)  
 이 물은 우리 것이다. (לָנוּ הַמַּיִם)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했습니다. (וַיִּקְרָא שֵׁם־הַבְּאֵר עֵשֶׂק)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כִּי הִתְעַשְׂקוּ עִמּוֹ)
- (21 절)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 또 다투었습니다.  
 (וַיַּחְפְּרוּ בְּאֵר אַחֲרַת וַיָּרִיבוּ גַם־עֲלֵיהֶּ)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고 했습니다. (וַיִּקְרָא שְׁמָהּ שִׁטְנָה)
- (22 절) 그가 그곳에서 이동하여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וַיֵּצֵתֵם מִשָּׁם וַיַּחְפֹּר בְּאֵר אַחֲרַת)  
 그런데 그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וְלֹא רָבוּ עֲלֵיהֶּ)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וַיִּקְרָא שְׁמָהּ רְחֹבֹת וַיֹּאמֶר)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넓혀 주셨으니 (כִּי־עָתָה הִרְחִיב יְהוָה לָנוּ)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וַיִּפְרִינוּ בְּאֶרֶץ)
- (23 절) 그는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וַיַּעַל מִשָּׁם בְּאֵר שָׁבַע)
- (24 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רְא אֱלֹוֹ יְהוָה בַּלַּיְלָה הַהוּא וַיֹּאמֶר)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אֲנִי אֱלֹהֵי אַבְרָהָם אָבִיךָ)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אַל־תִּירָא כִּי־אֲתָךְ אֲנִי)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וַיְבָרֲכֵיךָ וַהֲרַבִּיתִי אֶת־נַרְעֶךָ)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בְּעִבּוֹר אַבְרָהָם עֲבָדִי)
- (25 절)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בֶן שָׁם מִזְבֵּחַ)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וַיִּקְרָא בְשֵׁם יְהוָה)  
 그는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וַיִּטֶּ־שָׁם אֹהֶלֹו)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וַיַּחְפְּרוּ־שָׁם עֲבָדֵי־יִצְחָק בְּאֵר)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잠시 그랄 골짜기로 떠났던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은 예전에 아버지 이브라함이 파 놓았던 우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명명했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이 우물은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과 상호 평화 조약을 맺으며 판 우물이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자신이 팠다는 증거로 양과 소를 가져다주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그 이름이 브엘세바다. 이삭이 그 우물을 굳이 아버지가 명명한 이름 그대로 사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우물이 아버지 아브라함 대에 이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소유권이 확정된 우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그 당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해 서로 계약을 맺었고 아비멜렉은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를 주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내놓음으로써 언약을 공증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후에 그 우물을 불법적으로 메워버렸다. 이삭은 바로 그 우물을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다른 우물을 팠다. 아마도 더 많은 식수원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샘솟았다.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이삭에게 왔다. 그리고는 이 우물이 자신들의 파 놓은 우물이라고 우겨댔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했다. 그랄 사람들과 이삭이 우물을 놓고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옮겨 가서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 목자들은 이번에도 그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 했다. 싯나는 ‘고발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다.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툼이 없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는다. 하나님이 장소를 넓혀주셨다는 의미다.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팠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 우물을 포기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자 또 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또 포기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르호봇이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없었다. 도대체 왜 이삭이 왜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그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섰던 걸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피해를 볼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우물을 파든 생수가 샘솟게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이삭이 거할 땅이 아니며, 이삭이 정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보아야 한다.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다툼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초지를 놓고 다툼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그 때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다. 당시 롯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았다. 이번에는 반대다. 이삭은 그 동안 팠던 모든 우물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아버지가 우물을 파고 맹세를 했던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당시도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번에도 동일하다. 이번엔 이삭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삭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등바등거리야 했다.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억울하게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면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이 세상의 삶이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 그가 우물을 파고 다툼 때마다 세상에 의해 탈취당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보고만 계셨다. 결국 이삭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버지가 파 놓았던 맹세의 우물이 있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삭이 판 우물의 물로 백 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올 때까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셨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다. 에섹을 빼앗기고, 싯나로 다투고, 끝내 르호봇을 얻었다.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가는 우물이겠는가? 그 우물을 파고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삭은 이내 그곳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넓은 초원, 풍성한 수자원, 더 이상 다툼없는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바로 그시점에 이삭은 모든 걸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성경은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침묵한다. 대신 브엘세바로 돌아 온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신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창 26:24).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보장된 세상적 풍요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그것에 매여 다른 이들과 아귀다툼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당장의 풍요 대신 약속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당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친을 맺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6:26~34)

- (26 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וַאֲבִימֶלֶךְ הַלֵּל אָלָיו מִגְּרָר.)  
 그의 친구 아훗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וְאַחֲזַת מְרַעְהוּ וּפִיכֵל שֶׁר־צָבָאוֹ)
- (27 절)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הֶם יִצְחָק.)  
 당신들은 왜 내게 온 것입니까? (מַדּוּעַ בָּאתֶם אֵלָי?)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떠나게 했었습니다.  
 (וְאַתֶּם שָׂנְאתֶם אֹתִי וַתִּשְׁלַחוּנִי מֵאֲתֶכֶם)
- (28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רָאוּ רָאִינוּ כִּי־הָיָה יְהוָה עִמָּךְ)  
 그래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וַנֹּאמֶר)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당신(이삭) 사이에 맹세를 하자.  
 (תְּהִי נָא אֵלֶּה בְּיִנּוּתֵינוּ בְּיִנּוּתֵינוּ וּבְיִנּוּתֵךְ)  
 우리가 당신(이삭)과 언약을 맺자. (וַנִּכְרַתָּה בְּרִית עִמָּךְ)
- (29 절)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אִם־תַּעֲשֶׂה עִמָּנוּ רָעָ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כַּאֲשֶׁר לֹא נִגַּעְנוּךָ)  
 우리가 당신에게 오직 선을 행하여 당신을 평안히 보낸 것처럼,  
 (וְכַאֲשֶׁר עָשִׂינוּ עִמָּךְ רַק־טוֹב וַנִּשְׁלַחְךָ בְּשָׁלוֹם)  
 당신은 지금 여호와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אַתָּה עִמָּה בְּרוּךְ יְהוָה)
- (30 절)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וַיַּעַשׂ לָהֶם מִשְׁתֶּה וַיֹּאכְלוּ וַיִּשְׂתּוּ)
- (31 절)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형제에게 맹세했습니다. (וַיִּשָּׁבְעוּ אִישׁ לְאָחִיו.)  
 이삭이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그로부터 평안히 갔습니다. (וַיִּשְׁלַחֵם יִצְחָק וַיָּלְכוּ מֵאֵתוֹ בְּשָׁלוֹם)
- (32 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וַיְהִי בַיּוֹם הַהוּא וַיָּבֹאוּ עֲבָדֵי יִצְחָק.)  
 그들이 그에게 그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וַיִּגְדּוּ לוֹ עַל־אֲדוֹת הַבְּאֵר אֲשֶׁר חָפְרוּ)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לוֹ)  
 우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מְצָאנוּ מַיִם)
- (33 절)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וַיִּקְרָא אֹתָהּ שֶׁבַעָ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은 오늘까지 브엘세바입니다. (עַל־כֵּן שֵׁם־הָעִיר בְּאֵר שֶׁבַע עַד הַיּוֹם הַזֶּ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비멜렉이 그랄로부터 왔다. 이 또한 낮익은 광경이다. 예전에도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블레셋 백성들이 다투었고 그일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친구 아훗삿을 데리고 왔다. 아훗삿(אַחֲזַת)은 ‘소유’라는 의미다. 그지



역의 통치권자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은 물론이고, 소유권을 입증해 줄 아훗삿까지 함께 대동하고 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삭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동안 우물 문제로 그랄 사람들에게 당한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삭은 그간에 부당하게 당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를 하자.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오직 선을 행하여 당신을 편안하게 보낸 것처럼... 당신은 지금 여호와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창 26:28-29).

그들이 먼저 이삭에게 화친을 제의했다. 그들은 이삭을 괴롭히는 와중에서도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살핀 모양이다. 이삭이 우물을 팎 때마다 물이 솟구쳐 올랐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우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요 젖줄이었다. 하지만 물줄기를 정확히 찾아내어 우물을 판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물줄기를 찾으려 해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다. 그에게 우물 파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다. 이삭은 마치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파는 족족 물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을 빼앗는 것뿐이었다. 그 때마다 이삭은 다툼을 피하려고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팎다. 그 과정을 지켜 본 아비멜렉은 이삭이 예삿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오래 전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그는 이삭과 얼른 화친을 맺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로 왔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당신은 지금 여호와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이삭의 모습이 그랬다.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의 뒤를 봐주고 있지 않다면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비슷하다. 그랄 땅에서의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 역시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번영을 떠 올리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흔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삭이 누린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아닌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을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서 찾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든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쁨의 원천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기쁨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비결’이라고까지 했다. 빌립보서 4장 10절~13절을 읽어보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0~13).

사도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가 부족하면 전전긍긍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무너져 내린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삶은 늘 세상의 영광을 쫓아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계속 지켜 보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해 올 것이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 3:14~15).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때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다. 적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 살려면 감내해야 할 고난은 분명히 있다. 그때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대한다면 그들 중 적어도 몇 명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럴 수 있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때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말이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 그곳은 그가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이삭이 이곳의 주인이다. 이삭이 특별히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니요, 강한 힘이 있어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다.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자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를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은 자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이서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6:34~35)

(34 절) 에서가 40 세가 되었을 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וַיְהִי עֶשְׂרֵי אַרְבָּעִים שָׁנָה וַיִּקַּח אֶשְׂרָאֵל)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을, (אֶת־הַיְהוּדִית בֵּת־בְּאֵרִי הַחַתִּי)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וְאֶת־בָּשְׂמַת בֵּת־אֵילֹן הַחַתִּי)

(35 절)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וַתְּהִי־לָהֶם מֵרַת רוּחַ לְיִצְחָק וּלְרִבְקָ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의 나이 사십이 되었다. 그는 아내 둘을 얻었는데 둘 모두 헛 족속의 딸들이었다. 한 여인의 이름은 브에리의 딸 유딧이고 다른 한 여인은 엘론의 딸 바스맛이다. 그 당시 남자 나이 사십이면 결혼 적령기를 한참이나 지난 늦은 때인데, 그나이에 헛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에서의 두 아내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겨났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두 여인은 모두 헛 족속이다. 헛 족속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주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들은 정복의 대상이자 진멸의 대상이었다 (신 7:1 참조). 당연히 그들과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특히 헛 족속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헤브론 지역에 몰려 살았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을 때에는 베넬 지역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다. 당시 베넬 근처 지역은 ‘헛 족속의 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워졌을 정도다 (삿 1:26). 창세기 이야기를 접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 족속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진멸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따라서 에서가 헛 족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비난 받을 뿐 아니라 이미 약속의 자녀 반열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경은 에서가 아내로 들인 두 여인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창 21:21 참조).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삶을 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에서가 혼인한 두 여인의 이름을 소상히 밝혀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밝혀 놓았으니 분명 깊은 뜻이 있음이 분명하다.

에서의 첫 아내 이름은 유딧 (הַיְהוּדִית)이다. 그는 브에리 (בְּאֵרִי)의 딸이다. 유딧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브에리’는 ‘신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유딧은 공교롭게도 유다와 그 어근이 같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신의 우물’로부터 나온 ‘찬양!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그런데

같은 찬양이라도 그 대상에 따라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때론 부처나 인간을 찬양할 수도 있다. 각각의 종교는 자신들만의 신을 찬양한다. 헷은 가나안의 아들로 가나안 땅의 신을 찬양했다. 유딧은 바로 그 이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그녀가 믿고 있는 신에게로 돌린 자다. 여호와와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이런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했겠는가?

이방신의 향기가 풍기기는 엘론의 딸 바스맛도 마찬가지다. 바스맛(בַּסְמַת)은 ‘향기’라는 뜻이다. 그의 아버지 엘론(אֵלֹן)이 ‘매우 강하고 화려한’이라는 뜻이니 이런 바스맛의 향기에 취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녀는 아마도 질식할 정도의 강렬한 향기로 에서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에서에 관한 이 기록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서의 이 사건을 반면 교사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에서와 같은 길을 걸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헷 족속 출신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입된 자들도 있었다. 알다시피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는 원래 헷 족속 출신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는 다윗이 자기 아내를 간음한 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성경이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 특히나 정복의 대상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신이어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 슬프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우를 범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변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찌면 에서일지도 모른다. 언약의 후손에서 이탈해 버린 장자에서 말이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에서의 혼인을 보며 각자 스스로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란다.

## 목상을 위한 질문

에서가 헷 족속의 딸과 혼인한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요? 다른 종교의 신과 비교할 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 너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와라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7:1~5)

- (1 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הִי כִּי-יָזְקוּ יַצְחָק וּתְכַהֲיִן עֵינָיו מֵרְאֵת וַיִּקְרָא אֶת-עֵשָׂו בְּנוֹ הַגָּדֹל וַיֹּאמֶר אֵלָיו) 내아들아. (בְּנִי) 에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גַנִּי)
- (2 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보라. 나는 늙었다. (הִנֵּה-נָא זָקְנָתִי)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לֹא יָדַעְתִּי יוֹם מוֹתִי)
- (3 절) 지금 너는 너의 기구,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들고 들로 나가서 (וַעֲמֵתָ שְׂאֵ-נָא כְלֵיךָ וְקִיָּיִךְ וְקִשְׁטְךָ וַיֵּצֵא הַשִּׁדָּה)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וַצֹּדָה לִּי צִידָה)
- (4 절)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וַעֲשֵׂה-לִּי מְטַעֲמִים כַּאֲשֶׁר אֲהַבְתִּי)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해라. (וְהָבִיָּאָה לִּי וְאִכְלָהָ) 그로 인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כִּי-עֲבוּר תִּבְרַךְךָ וְנִפְשִׁי בְטָרִם אָמוּת)
- (5 절)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וּרְבֵקָה שָׁמְעַת בְּדַבָּר יַצְחָק אֶל-עֵשָׂו בְּנֹו) 에서는 사냥감을 가져오기 위해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וַיֵּלֶךְ עֵשָׂו הַשִּׁדָּה לְצֹד צִיד לְהָבִיא)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세월이 흘러 이삭도 많이 늙었다. 이삭은 나이 마흔에 결혼을 했고 예순에 쌍둥이를 얻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백세에 에서가 헛 족속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추정컨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갈 당시에 나이가 77 세였으니, 이 사건은 이삭의 나이 137 세에 일어난 일이다. 알다시피 이삭이 죽을 때에 나이가 180 살이었다. 그런데 그는 137 살에 이미 시력을 상당히 상실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시작한다. 이 구절은 이삭이 시력을 상실한 것이 이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복선인 셈이다.

이삭은 시력이 점점 약해져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도 어려워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어느 날 그는 에서를 불렀다. 죽기 전에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 주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였다. 이삭은 에서에게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자기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한다. 늘 그러하듯 에서는 활과 화살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더더욱 가벼웠다. 에서의 나이 77 세였지만 그는 쏠살같이 사냥을 하기 위해 들로 나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명령은 이것이다.

“보라. 나는 늙었다.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는 너의 기구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들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게 먹게 해라. 그로 인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창 27:2-4).

에서를 향한 이삭의 이 명령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삭은 에서에게 행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먼저 반드시 사냥을 해야 한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냥에 쓰이는 도구도 에서의 것이어야 한다. 늘 에서가 지니고 다니고 그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드는 것도 에서의 몫이다. 에서는 평소에도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고,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 준 요리를 즐겼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다.

“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은혜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을 내려 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일종의 율법을 집어넣어 준 것이다. 사실 에서는 그런 이삭의 명령이 편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드는 것은 에서에게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된다. 그러니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율법은 지키면 지킬 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 하나 둘 지키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그 결과 율법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 행할 수 없는 사람들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 곧 의로움의 차이로 이어진다. 인간들은 서로의 의를 비교하고 키재기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이 구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설령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그 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으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는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 뼈를 묻는 분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처럼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쌓은 업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의를 측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결코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힘차게 활과 화살이 잔뜩 들은 화살통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얼른 밖으로 나갔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바로 그 순간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엿듣고 있는 이가 있었다. 아내 리브가였다. 순간 리브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곱을 지나치게 편애한 나머지 모종의 음모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비극은 이렇게 짝트고 있었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멋진 방편이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까? 율법을 통해 당신은 누구 앞에 서게 되었나요? 그때 당신이 깨닫고 알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 도대체 야곱이 한입이 뭔가?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7:6~17)

- (6 절)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רְבֵּקָה אָמְרָה אֶל-יַעֲקֹב בְּנָהּ לֵאמֹר)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הֲנֵה שָׁמַעְתִּי אֶת-אָבִי מְדַבֵּר אֶל-עֵשָׂו אָחִי לֵאמֹר)
- (7 절) 내게 사냥한 것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내가 먹게 해라.  
 (הֲבִיאָה לִי צִיד וַעֲשֵׂה-לִי מִטְעָמִים וְאִכְלָה)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וְאַבְרָכְכָה לִפְנֵי יְהוָה לִפְנֵי מוֹתִי)
- (8 절)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말을 들어라.  
 (וַעֲתָה בְנִי שָׁמַע בְּקוֹלִי לְאֲשֶׁר אָנֹכִי מְצַוָּה אֹתְךָ)
- (9 절) 지금 바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לָךְ-נָא אֶל-הַצֹּאֵן וְקַח-לִי מִשָּׁם שְׁנַיִם גְּדִיִּי עֲזִים טֹבִים)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로 만들 것이다.  
 (וְאֶעֱשֶׂה אֹתָם מִטְעָמִים לְאָבִי כַּאֲשֶׁר אָהֵב)
- (10 절) 네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그가 먹을 것이다. (וְהִבֵּאתָ לְאָבִי וְאָכַל)  
 그로 인해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וְעַבְדְּךָ לִפְנֵי מוֹתוֹ)
- (11 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עֲקֹב אֶל-רְבֵקָה אִמּוֹ)  
 보세요. 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הֲוֵן עֵשָׂו אָחִי אִישׁ שְׁעָר)  
 그러나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וְאֲנֹכִי אִישׁ חֲלָק)
- (12 절) 아마도 제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실 것입니다. (אוּלַי יְמַשְׁנֵנִי אָבִי)  
 제가 그의 눈에 그를 업신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וְהִייתִי בְעֵינָיו כְּמַתְעַתֵּעַ)  
 제가 제 자신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וְהִבֵּאתִי עָלַי קִלְלָה וְלֹא בְרָכָה)
- (13 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לוֹ אִמּוֹ)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릴 것이다, 내 아들이야. (עָלַי קִלְלָתְךָ בְּנִי)  
 너는 단지 내 말을 들어라. (אָךְ שָׁמַע בְּקוֹלִי)  
 가서 나에게 가져와라. (וְלָךְ קַח-לִי)
- (14 절) 그는 가서 (두마리를) 골랐고,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וַיֵּלֶךְ וַיִּקַּח וַיָּבֵא לְאִמּוֹ)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וַתַּעַשׂ אִמּוֹ מִטְעָמִים כַּאֲשֶׁר אָהֵב אָבִיו)
- (15 절) 리브가는 그녀의 집에 있는, 그녀의 큰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서  
 (וַתִּקַּח רְבֵקָה אֶת-בְּגָדֵי עֵשָׂו בְּנָהּ הַגָּדֹל הַחֲמֹדֹת אֲשֶׁר אָהֵב בְּכֵיִת)  
 그녀는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וַתַּלְבִּשׁ אֶת-יַעֲקֹב בְּנָהּ הַקָּטָן)
- (16 절) 그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였습니다.  
 (וְאֵת עֹרֹת גְּדִיֵּי הָעֲזִים הַלְבִּישָׂה עַל-יָדָיו וְעַל חֲלֻקַּת צִנּוּרָיו)
- (17 절) 그녀는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그녀가 만든 떡과 별미를 주었습니다.  
 (וַתִּתֵּן אֶת-הַמִּטְעָמִים וְאֶת-הַלֶּחֶם אֲשֶׁר עָשְׂתָה בְּיַד יַעֲקֹב בְּנָ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인데다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다. 사냥과 요리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들이 에서다.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리브가의 마음판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불렀다. 야곱은 시냇말로 집돌이였다. 그날도 장막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리브가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것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내가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내가 네게 명령하는대로 내 말을 들어라. 지금 바로 염소 때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로 만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그가 먹을 것이다. 그로 인해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창 27:6~10).

리브가는 지금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 이삭은 에서에게 들로 나가 직접 사냥을 해 오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 새끼 두마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또 이삭은 에서에게 직접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서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야곱이 할 일을 리브가가 전부 다 대신 해주는 꼴이다. 문제는 야곱이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머니를 말리며 차라리 형과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분고분하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보다 한 술 더 뜬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한 말을 들어 보자.

“보세요. 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실 겁니다. 제가 그의 눈에 그를 없신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창 27:11~12).

야곱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장자권을 얻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술 더 떠 어머니의 계획만으로는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좀더 완벽한 눈속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그에게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의 전형이다.

거기다 야곱은 무능력하기까지 하다. 그저 걱정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그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도 역시 리브가의 몫이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염소 두마리를 골라왔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걸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요리를 마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만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에서의 장막으로 들어가 에서가 입던 옷을 가지고 와서는 야곱에게 입

했다. 그런데 밖으로 들어난 손과 목이 문제였다. 리브가는 염소의 가족을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에 붙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분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야비한 행동인가? 야곱을 열심히 에서로 위장해 주는 엄마 리브가도 그렇고 한술 더 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야곱도 그렇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의아하지 않는가?

이 순간 야곱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지금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있다. 그의 목과 손은 죽은 염소의 가족으로 가려졌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들고 간 음식은 아버지 이삭이 키운 염소 새끼를 잡아 만든 것이다. 게다가 엄마 리브가가 요리해 준 별미였다.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간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요리를 들고 이삭 앞에 나가는 것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야비한 행동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의를 입증하라고 닥달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 자기 화살통을 지고 활을 들고 직접 사냥을 하러 나간 에서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다. 자기들이 쌓은 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놓았다.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든 나의 의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야곱처럼 비열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누구든 야곱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모순된 이중성이다. 에서처럼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철저히 만형인 예수님으로 자신을 위장해야 한다. 그래야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야곱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야곱의 비열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과정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구원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필수 과정이라면 당신에게 그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토요일)

### 오늘의 본문 (창 27:18~20)

- (18 절)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וַיָּבֹא אֶל-אָבִיו וַיֹּאמֶר)  
 나의 아버지. (אָבִי)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 (הֲיֵנִי מִי אַתָּה בְנִי)
- (19 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עֲקֹב אֶל-אָבִיו)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입니다. (אָנֹכִי עֶשָׂו בְּכֹרְתִי)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עָשִׂיתִי כַּאֲשֶׁר דִּבַּרְתָּ אֵלָי)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것을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축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קוּם-נָא שָׁבָה וְאָכְלָה מִצִּידִי בְעֵבֹר תְּבָרְכֵנִי נְפֹשָׁךְ)
- (20 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יִצְחָק אֶל-בְּנוֹ)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내 아들이. (מַה-הֵיךָ מְהֵרָה לָּמְצָא בְנִי)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כִּי הִקְרָה יְהוָה אֱלֹהֵי לְפָנַי)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를 잡아 정성스럽게 요리한 별미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나의 아버지!” (אָבִי).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다. 행여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마음을 졸이며 나갔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만약에 이삭이 눈치를 채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다행히 이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삭은 “나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자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이!”

이삭은 긴가민가 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가 맞기는 한데 어디서인지 야곱인지 당채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야곱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지금은 반드시 예서여야 한다. 야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을 예서로 믿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 첫 관문이다. 야곱은 자신을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라고 소개한다. ‘맏아들 예서!’ 야곱이 얼마나 원했던 자리인가? 그가 지금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맏아들 예서가 되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 앞에 앉아 있다.

우리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나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 옷조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도덕적 공로, 율법적 열매, 그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와 동일하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강도도 모두 그리스도로 자신의 의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지금 야곱은 자신을 형 에서로 소개하고 있다. 분명 야곱이면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로 설명하는 야곱의 모습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 같고 야비한 야곱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야곱에게 이삭이 말한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내 아들이야.”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평소에 에서가 하던 걸 생각해 보면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 오려면 적어도 한나절은 족히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다 싶으니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늘어 놓는 야곱을 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거짓말도 유분수지 이제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다니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무리 이삭이라 한들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자신의 합리적 의심을 곧바로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 거룩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별짓 다 하고 살았다. 태어나 자라면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들에게 반항도 했었고, 대학에 가서는 젊은 치기로 세상의 향락도 즐겼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는 명문 대학이 뭐라고 거기를 보내는데 온갖 정력과 돈을 쏟아 붓느라 바빴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아동바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동안 내어 왔던 현금도, 교회에 봉사했던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뭘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으신다.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 만들어 내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제게 주셔서 제가 그것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어찌보면 양체같은 고백이 아닌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 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만형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지만 구원 받은 후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때부터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훈련받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아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과정에 당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 삶의 시작점이라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까?